등록신청서

국문성명	
영문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 병원명	
휴대폰	
입금자명	

등록안내

- 사전등록마감일: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 **참석대상** 대한비과학회 정회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회원
- **전 문 의** 60,000원 (2017년 연회비 납부자)
- **전 공 의** 30,000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602-533808 (대한비과학회)
- **평 점** 6점
- **등록방법** E-mail. rhino@ksrhino.or.kr
  Fax. 02)3461-9947
- **선 착 순** 300명

- 문의 및 등록신청서 보내실 곳

대한비과학회 사무실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마리아관 2층 209호
Tel: 02) 3461-9945
Fax: 02) 3461-9947
E-mail: rhino@ksrhino.or.kr

찾아오시는 길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교통편 안내

지 하 철
고속터미널역(3, 7, 9호선)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버 스
간선버스 (B) 142, 462, 540, 642, 740
지선버스 (G) 3414, 4425, 5413, 서초01, 서초13, 서초14, 서초21, 3420
광역버스 (R) 9408

※ 등록처에서 무료주차권을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Beyond the Current Rhinology

제12회
대한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동심포지엄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Beyond the Current Rhinology

제12회
대한비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동심포지엄

일시: 2017년 6월 18일 (일요일) 오전 9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하1층 대강당

주최: 대한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Invitation

초대의 글

대한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대한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공동심포지엄이 올해로 벌써 12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동심포지엄은 대한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많이 노력해왔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선생님들의 비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더더욱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포맷을 바꾸어 한 주제에 집중하기보다 각 분야별로 새로운 지식을 다루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각 분야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해 개원의 선생님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는 'Beyond the Current RHINOLOGY'라는 제목으로 찾아 뵙게 되었습니다. 비염과 부비동염,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필러시술 및 보험청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분야에 걸쳐 개원의의 시각으로 진료에 필요한 검사 및 시술방법 등의 진료 내용뿐 아니라 보험 등에 대해서 소개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비염분야는 약물치료 중 특수한 상황에서의 약물치료, 실질적인 면역치료방법의 모든 것 및 최근 개원가에 많이 사용이 되어 궁금해 하시는 히스토불린 면역 주사에 대한 강의가 있고, 비부비동염 분야에서는 부가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 비강세척에 대한 명쾌한 정리와 함께, 생물학적제제의 등장과 함께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비부비동염에서의 정밀의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골이는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1차 병원과 2/3차 병원에서 코골이/무호흡 환자 치료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코골이/무호흡치료의 모든 것에 대해 80분간 패널 토의를 하여 개원가에서 애매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더불어 금년 보험적용이 예상되는 양압기에 대한 A부터 Z까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필러 시술법에 대해 명강의로 유명한 개원의 선생님을 모시고 쉽게 필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1시간의 특강이 있을 예정이며, 보험 강의에서는 '수술-마취' 관련 보험청구 팁, 인정비급여, 설명의무법 등 여러가지 노하우가 들어간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여름으로 향하는 6월, 공동심포지엄이 연자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느끼고 진료현장에 바로 도움이 될 시간이 되고 대한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년 5월

대한비과학회 회장 **조 진 희**

Program

08:30~08:50 **등록**

08:50~09:00 **개회사** — 조진희 (대한비과학회 회장), 홍일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Beyond Rhinitis

09:00~09:30 알레르기비염의 약물치료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 정용기 (성균관의대)

유소아, 학생, 임산부/수유부, 노인, 고혈압/당뇨, 심장질환, 콩팥질환을 가진 비염 환자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약물 사용의 tip 및 실제 사용방법

1. 항히스타민제, 혈관수축제, 스테로이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2. 문헌에서 권고하는 최적 용량은?
3. 반응이 없을 때, 약제 중복사용 및 교차사용이 가능한가?
4. 감기 걸렸을 때 약물사용의 방향이 달라지는가?

09:30~10:00 알레르기비염의 면역치료 시 고려할 점 — 송우정 (서울의대 알레르기내과)

최근 10년간 알레르기비염 환자들의 항원분포 변화 추적관찰에 따른 적절한 항원선택 치료방법

1. ImmunoCAP, MAST, Skin Prick Test 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원을 선택하는 법
2. 만약, 검사를 동시에 시행했을 때 서로 결과가 다르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3. 결과는 양성이지만, 병력에서 음성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knowhow
4. F/U 검사를 시행하는 시기는?

10:00~10:30 히스토불린과 Omalizumab의 모든 것 — 최정희 (한림의대 알레르기내과)

알레르기/비알레르기 비염에서 근거로 제시하는 히스토불린 면역치료

1. 약물 대용하는 개념인가 vs. 유지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가
2. 비용 vs. 효과/위험성 vs. 만족도
3. Intractable rhinitis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4. Omalizumab 치료의 효과와 임상 치료방법의 실제: bench to practice

10:30~10:50 *Coffee Break*

Beyond Rhinosinusitis

10:50~11:20 비부비동염 치료의 Adjunctive Treatment — 이승훈 (고려의대)

뮤코미스트, 부데소나이드 비강세척, 부비동염 및 비염에도 효과가 있는가?

1. 비부비동염 치료에 있어 adjuvant treatment가 가지는 의미는?
2. 부비동염 치료에 있어 점액용해제의 근거 수준과 정확한 위치는?
3. 병원 내 판매여부 및 상품별 특장점 비교
4. 수가창출 방법과 청구요령: 의사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

11:20~11:50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 타입에 따른 비부비동염의 치료 전략 — 김대우 (서울의대)

정밀의학(Precision Medicine)을 응용한 물혹과 만성 비부비동염의 최신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

1. 잘 낫지 않는 비부비동염, 이제는 내재형(Endotype) vs. 표현형(Phenotype) 구분해서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가?
2. 정밀의학(Precison Medicine)을 이용한 비부비동염 치료의 현실적인 예시

11:50~12:50 *Lunch*

Beyond Snoring and OSA

12:50~14:10 Panel Discussion –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적절한 치료란
좌장: 정유삼 (울산의대)
대학: 이승훈 (고려의대), 김동규(한림의대)
개인: 이현종 (리앤홍이비인후과), 이윤규 (상쾌한이비인후과)

1차 vs. 2차/3차병원에 따른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하는 요령(패널: 개인병원 vs. 수면전문병원 vs. 대학병원)

1. 의뢰할 것인가 vs. 치료할 것인가 vs. 관리할 것인가?
2. 환자가 만족하는 치료 vs. 의사가 만족하는 치료
3. 보험 급여화를 대비하는 자세 및 대응책
4. 실손보험,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손해보지 않으려면

14:10~14:40 양압기의 모든 것 — 박찬순 (가톨릭의대)

양압기 의료급여 시대를 앞둔 양압기 처방 관리 및 보험 청구의 모든 것 (수면분과 전문의가 관리하는 양압기)

1. 양압기 처방할 때 상담 방법
2. 양압기 초기 순응도 높이는 knowhow(턱끈 사용 요령, 얼굴 눌림, 소음 해결, 공기 삼키는 경우 등)
3. F/U 때 꼭 챙겨야 하는 부분과 청구요령
4. 양압기 사용 시 '불면증' 해결하는 약물사용 팁
5. 바뀌는 보험급여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
6. 양압기 회사별 장비수준 및 특장점 비교

14:40~15:00 *Coffee Break*

Beyond Practice

15:00~16:00 개원의가 할 수 있는 필러 시술 — 고익수 (고익수성형외과)

자신감 있게 얼굴 부위 필러 시술하기(성형외과 고수에게서 배운다)

필러는 메인 vs. 보톡스는 덤

16:00~16:30 좀처럼 듣기 어려운 보험청구의 팁과 새로운 인정비급여 소개 — 김주환 (열린성모이비인후과)

1. '수술-마취'관련 보험청구 팁
   - 수면마취: 프로포폴 급여 vs 비급여(100/100)
   -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 정확한 방법과 청구요령
   - 마취 관련 수가 청구하기: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 산소,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 정맥마취
   - 국소마취제: 마약장부 작성 및 관리하는 법
2. 비과영역에서 인정비급여 따라잡기
   - 비밸브 재건술
   - 후각 장애 치료를 위한 후각 재활 훈련
   - 수면무호흡증치료를 위한 상기도 근기능강화운동 치료
3.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시술/마취/수술 동의서 받기
4. 비출혈 지혈법(수가정리) 및 패킹재료 청구하기

Invitation

초대의 글

대한비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가 함께 만들고 참여하며 학술적 발전과 친목을 도모하고, 진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온 비과 공동 심포지엄이 12회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가급적 모두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오랜 기간 준비하여, 회가 거듭 될수록 양적 · 질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비과학회와는 더욱 돈독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전통이 되어가는 공동 심포지엄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고 발전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올해는 의사회의 공식 명칭이 변경되고 처음 맞는 심포지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노력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지켜보시며 질책과 조언,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현재의 비과 진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Beyond'라는 개념하에 비염, 비부비동염, 수면질환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비염세션은 특수한 상황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상 고민하던 처방의 노하우를 배우고, 면역치료와 새로운 비염 치료법에 관하여 알레르기내과 전문가에게 배우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비부비동염에 부가적으로 행하는 비강 세척의 효과, 정밀의학을 응용한 최신 치료법이 소개되는 다소 새롭고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병원규모에 따라서 수면관련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아보고, 양압기의 'A to Z'를 공부하는 등 '청중 맞춤형'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쁘띠성형을 배우고 보험전문가만이 알고 있는 보험청구 팁을 배우는 시간으로 다른 곳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아주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세가 격동하며 급변하는 시기이지만, 심포지엄이 열릴 초여름에는 새로운 지도자가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 안정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훌륭한 공동심포지엄이 되도록 고생하신 대한비과학회 조진희 회장님과 임원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부회장님과 학술이사, 학술위원들께 회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질적이고 바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셨을 연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비과학회와 이비인후과의사회 회원 모두 건강하시고 번창하시길 기원하며 초여름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5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회장 **홍 일 희**